

(주)동남물산

44년 전기인생 국산화로 점철, 중전기기 개발 ‘선봉장’



금탑산업훈장 이병균
(주)동남물산 회장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훌륭한 분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기업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수출확대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42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병균 (주)동남물산 회장은 뜻밖의 대상을 받았다고 겸손해하면서도 수상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중소전기기업에 금탑산업훈장이 주어진 것은 극히 의례적이라 중전기업계는 사뭇 경사 분위기다. 업계의 위상과 사기가 진작되고 업계는 크게 고무되고 있다.

중전기기업 위상과 사기 진작 업계 크게 고무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이병균 회장의 반평생은 전력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집념으로 점철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화력발전소의 국산화율은 98%. 원자력발전소의 국산화율은 이미 95%를 넘어섰으며, 세계제일의 값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는 거의 반세기동안 한 우물만을 파오면서 전력기기의 국산화 개발을 주도한 이 회장의 열정이 짙게 배어있다.

이 회장은 국내 원자력자재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원전기자재를 국산화한 장본인이다. 이를 통해 기자재관리절차와 시스템을 정착시켜 기자재 국산화는 물론 공기를 단축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중저준위 폐기물관리 시설의 부지선정을 대내외에 헌신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이다.

한국전력 국산화개발부장으로 전력기자재 신기술개발 독려

이병균 회장의 전기인생은 올해로 44년째. 한국전력공사 22년, 동남물산을 설립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2년을 전기, 전력 기자재의 개발과 국산화로 국내 전력계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국산화 인생은 62년 한국전력 공사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한 전 입사를 계기로 전기와 인연을 맺은



그는 국산화개발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두드러진 업적을 나타냈다. 당시 거의 수입에 의존해오던 전력기자재의 신기술 개발을 독려했고,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국산화의 선봉자 역할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60년대는 국내산업이 한창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전력기자재 국산화율은 20%에 불과했죠. 69년 154kV 변압기 국산화에 이어 78년 345kV 변압기가 처음 선보였던 시기라 송, 배전선로의 국산화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기자재의 규격을 만들고 법령을 제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국산품이라면 무조건 외면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기자재의 필요성을 알리고 업체에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등 국산화에 앞장섰다. 한국전력을 퇴사하고 84년 동남물산을 창업한 이후에도 국산화에 대한 그의 투혼은 멈추지 않았다.

동남물산 설립이후 기술개발 고삐 한시도 늦추지 않아

“한전에 근무할 때부터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도 제품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끊임없는 R&D투자의 노력으로 송변전과 배전 금구류, GIS, 배전용 차단기 및 개폐기 등 각종 전력설비의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93년 업계 선두로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동남물산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해외 연구과제 14건을 완료했고, 신제품은 62건이나 개발해냈다. 현재 보유한 지적재산권도 놀랄만하다. 특허 5건, 실용신안 13건, 의장 12건 등 총 30건이 이미 획득했거나 출원 중에 있다. 첨단기술을 요하는 170kV 가스, 170kV 및 25.8kV Plug-In System 접속재 역시 동남물산이 신기술 개발의 끈을 잠시도 늦추지 않은 성과물이다.

이 회장은 이에 머물지 않고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25.8kV GIS외함을 국내최초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역수출하는 개가를 이룩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02년 11월 무역의 날에 ‘백만불 수출탑’을



알루미늄 급속 용해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일본 히다치제작소와 170kV GIS에 대한 기술제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기술을 적용했으며, 국내 전력산업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기술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물산은 현재 개발 중인 국내최초의 170kV 알루미늄 탱크 타입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중국 JLANSU JINXIN DONGNAM ELECTREC CO, LTD를 설립하고 글로벌 경영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값싸고 우수한 부품을 생산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중책 맡아 산업발전 견인

동남물산은 이와함께 송변전 및 배전 기자재의 개발로 전력계통망 구축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송전철탑용 LED항공장재, 변압기기용 전공개폐기, 전자식 배전선고장구간 표시기, 주상변압기 과부하 경보기, CLIP형 고장표시기 개발 등으로 적시에 고장 지점을 찾아내 고장으로 인한 사고구간을 줄였다. 또 배전용변압기의 과부하시에는 즉각 경보음이 울림으로서 정전을 미연에 방지해 인적, 물적 피해를 최

소화했다.

이 회장은 기업경영의 바쁜 일정에도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원,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안성상공회의소 명예 회장 등 각종 단체 임원을 역임하면서 국내 상공업 발전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교량이 되었다.

또 소년 소녀가장, 고아원, 양로원, 복지원, 한센환자마을 등 소외된 이웃과 재난사고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 로타리 3650지구 9지역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 협의회 자문위원, 평택세무소 열린 세정 자문위원을 맡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신사란 수식어에 걸맞게 정도경영으로 일관

이 회장은 훗날 키에 전형적인 미남형이다. 수려한 외모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젠틀한 매너로 영국신사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닉네임에 걸맞게 설립 후 줄곧 기술우위의 정도경영을 실천해온 그는 2005년에는 모범납세자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소 성실, 정직, 창의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매사 신의를 중시해 한번 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언제나 밝고 부드러운 품모처럼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슬한 실패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며 오히려 개발자들을 위로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전기는 모든 산업의 동력입니다.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전력기기를 공급해 회사발전은 물론 인류문명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기술로 승부해 동남물산을 중전기기 메이커로 도약하는 데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중국인은 게으르고 일본인의 지나친 리스크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우리민족이야말로 기술력만 있으면 충분히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제1공장(알루미늄 주조사업부) 제2공장(중전사업부)와 R&D센터